

# ‘고령자 수행·교화 무리’ 반영

## 조계종, 왜 출가연령 제한했나

오는 10월 10일 이후부터 40세 이상인 사람은 조계종으로 출가할 수 없게 됐다.

조계종은 10일 총무원 1층에서 열린 제 154회 임시중앙총회에서 출가 연령을 5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낮추는 ‘교육법 개정안’을 출석의원 48명중 찬성 38표(반대 7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안 공포일인 10월 10일 부터 적용되며, 따라서 이날 이후 출가자를 대상으로 한 25기 행자교육원(내년 8월 예정)부터는 40세 이후 출가자의 입교가 불허된다. 다만 현재 행자교육을 받고 있는 40세 이상은 이번 개정안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10월 9일 이전까지의 40세 이후 출가자도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출가 연령을 50세에서 40세로 낮추는 교육법 개정안을 중앙총회에 상정했던 조계종 교육원은 고령 출가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

이들이 수행과 교화에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있는 실정에 대한 스님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원은 그동안 고령 출가자들이 늘어나면서 행자교육 분위기가 흐려지는데다, 구족

토대로 40대 출가자들의 구족계 수지비용을 조사한 결과 91~97년 7년 동안 40대 출가자 중 44%가 비구(나)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출가자 가운데 비구(나)계를 받지 않은 비율이 10~15%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40대 출가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환속하거나 중단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 부

## 내달 10일부터 40세이상 행자 입교 불허 “능력있고 신심깊은 불자 구제장치 필요”

계를 받기 전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높고, 또 구족계를 받더라도 수행과 교육, 교화 과정에서 위계는 물론 승가 화합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실제로 최근 교육원이 총무원의 승적부를

적용자가 속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게다가 1995~97년 40세 이상 출가자가 8~9%였던 것이, 98년 10.2%, 2000년 14%, 2001년 18%, 2002년 23%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출가자 연령을 낮춘 것은 승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교육원은 밝히고 있다.

조계종 중앙총회 교육분과위원장 황직스님은 “출가자가 줄어들겠지만 40대의 비구(나)계 수계비용이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별다른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뒤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면 교구본사에서 1~2명씩 학비일체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책을 통해 양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교육원 교육부장 도현스님도 “능력있는 젊은층을 승가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연령을 문제 삼아 출가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능력있고 신심깊은 40세 이후 출가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조계종 총회의원 현각스님은 “교육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40세 이상이라도 총무원 장이나 교구본사 주지가 추천하고 계단위원회 심사를 거친 사람에 한해서는 중단 주요 직책이나 주지를 맡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출가를 허락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계종도 40세 이후 출가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북한산 노선조사위’ 왜 늦나

불교계와 정부, 건설회사가 북한산 관동도로 대안노선 검토 노선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지 14일로 한 달이 된다. 8월말 까지 조사위를 구성기로 한 합의가 9월중순이 되도록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또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천성산 통과와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도 불교계와 건설업계의 위원 구성에 대한 의견차가 커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산 관동도로 대안노선 검토를 위한 노선조사위원회가 꾸러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선조사위원을 명명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가 환경·건설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불교계 대표, 환경운동가, 지역주민들을 옵서

불교계의 맡 못할 속사정도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리더십 부재. 지난해 11월이래 북한산 관동도로 문제가 제기된 이후 불교계는 수경스님을 중심으로 풀풀 뭉쳐 이번 사안을 풀어갔다. 물리적인 공사 저지 운동이 매달 이어지고, 수경스님이 중심에서 물러난 지금, 문제를 풀어갈 주체가 없다는 것도 노선조사위 구성 지연에 한몫하고 있다.

노선조사위의 위상도 큰 문제점이다. 조계종 공대위 김용구 간사는 “설령 노선조사위원회가 구성돼 노선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통과문제를 놓고 추진 중인 민관협의체의 구성도 불교계

## 구성 조사위원수 싸고 양방 신경전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 민관협의도 표류

버로 참가시켜 최대 20여명 선에서 노선조사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건설회사는 환경·건설 관련 전문가만으로 10명 미만에서 노선조사위를 꾸리는 것이다.

본 게임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이 신경전이 지속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감 때문. 불교계는 북한산 관동도로 설계 과정에서 정부와 건설회사가 최소의 전문가들을 동원해 형식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을 잊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만으로 노선조사위원회가 꾸러질 경우 대안노선 검토가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재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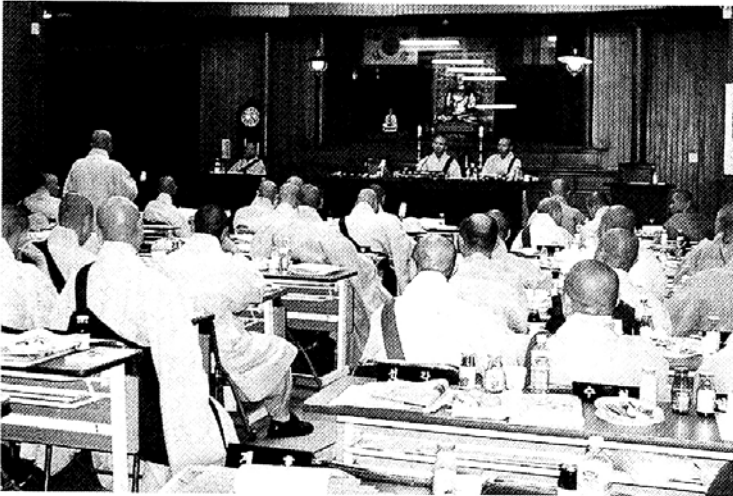
막상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노선조사위 구성을 압박하지 못하는 데에는

와 건설사측이 위원 구성에 대한 의견차로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민관협의체의 구성 방법. 불교계는 건교부가 민관협의체 시민단체위원을 부산, 경남 지역의 단체가 아닌, 서울지역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선정, 협의체 구성 의도를 흐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천성산 구간에 대해 일방적으로 시추공사를 벌이는 등 밀어붙이듯 사업추진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내원사 지율스님은 “관계전문가로 내세운 사람들이 공단간부나 하청업체 대표 등인데다 시민단체 위원은 서울 지역의 시민단체 소속이어서 민관협의체 구성 의미를 무색케 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천미희·강유신 기자



조계종 12대 총회가 10일 열린 제154회 임시중앙총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조계종의 제 2기 개혁중단을 이끈다는 시대적 열망속에 출범한 제12대 중앙총회는 계파간 협력투기와 파행운영 등으로 중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며 10일 막을 내렸다. 총회가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사전 서면 정책질의가 이뤄지면서 안전토의가 종현 중법 총령에 기초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의견개진이 활발했던 점은 일단 긍정적인 점으로 꼽힌다.

또 정책 생산기구로 거듭나자는 취지에서 분과위원 총단현안 주제를 선정해 세미나를 열고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제자리를 잡은 모습도 보여주었다.

12대 총회는 전반적으로 총회정책모임의 활성화가 눈에 띈다. 하지만 총회정책모임은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사안에 따라 계파가 함께 움직이는 양상으로 전락하며, 오히려 생산적인 총회기능을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

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다 일여회와 육화회, 청림회와 무등회가 합종연행하며, 종단의 민감한 사안들이 거시적 차원에서 결정되기 보다는 문중이나

## 서면 정책질의·세미나·자료집 발간 ‘긍정적’ 상임분과위 활동 활성화·토론회 문화 정착돼야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계파이익에 따라 다루지는 경향을 보여 계파중심의 총회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에 따라 계파위주의 운영을 극복하고 총회가 종단의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되찾는 과제를 차기총회가 떠안게 됐다.

4년간 운영된 12대 중앙총회를 분석해

보면 개회 회수는 제 135회부터 제 154회까지 모두 17회의 분회회가 열렸다. 총 회의일수는 총회법에 규정된 125일의 회기 중 56일만 개회했다. 평균 개회일수는 2.8일이다. 안전처리는 총 457건 중 분회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279건이며, 178건이 이월됐다.

개회일수가 적고 안전처리가 미흡하며, 이월안건이 많은 것은 탄우스님 제명, 총무원장 선거 휴유증 등 어떤 사안에 대한 계파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성원미달로 자동폐회가 거듭된 결과였다.

총회가 이렇게 파행운영 됨에 따라 종단의 업무추진에 지장이 초래됐다. 신도 및 법령 정비, 각종 포교정책 수립이 늦어졌으며, 포교, 역경, 도제양성 등 종단의 여러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대안 수립에 있어

# 입법대의기구 역할 미흡 계파 이해관계에 더 민감

## 10일 막내린 조계종 제12대 중앙총회

미진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총회의 모습때문에 일각에서는 총회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종단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부의 각종 행정을 견제하는 총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교계에서는 총회 의원들의 사명감이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교계는 11월 9일 출범하는 제13대 중앙총회는 보다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총회의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문위원의 활용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주장이다. 또 비상임 전문위원을 선임, 중단 현안에 긴급히 대처해야 생산적인 총회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계종 중앙총회사무처는 12대 총회 평가서에서 13대 총회의 과제로 △상임분과위 중심 운영 및 조사연구사업 지원 △총회헌법 정비 △총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기능강화 △대안중심 토론회문화 정착위한 제도적 정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 아바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오!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임시만 강력한 마음스핀 여행-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오

해산아바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navatar.com  
세이아바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 (봉) 종단 합동 보살수계 대법회 (축)

민족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영원하고 사회안정을 기원하며 사부대중이 불자로 입문하는 보살계를 대한불교 무량종 총본산인 지리산 칠보정사 금강계단에서 종단 대덕여러 큰 스님을 모시고 보살(거사, 학생)합동 수계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인연 닿는 여러 불자님들은 수계를 받아 범행을 갖어 불자란 사명감과 소속감으로 불자의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6(2002)년 9월 29(음 8. 23) 일요일 오전 10시 부터      ◇ 장 소 : 대한불교 무량종 총본산 총무원 칠보정사 금강계단

봉

행

의

원

■ 증명법사 : 전정해 대종사, 양지은 대종사, 장혜운 대종사

■ 고 문 : 지산, 정현, 법전, 조지광, 정자운, 이정익, 최종선, 하명기, 윤기순

■ 봉행위원장 : 정혜안 대종사

■ 부위원장 : 김보경, 허지웅, 편보성

■ 지도위원 : 청운, 지암, 보혜, 정수, 보담, 보삼, 원각, 보원, 정진, 정원, 선심, 지향, 정선, 향심, 지선, 지현, 지인, 정연, 관음심, 문수행, 보련심, 김갑연

■ 집행위원장 : 박보산

■ 부위원장 : 김보인, 이보운, 한보각

■ 총무부장 : 장보일    ■ 경호부장 : 김법산    ■ 의전부장 : 박보덕

■ 시설부장 : 정보문    ■ 재무부장 : 강보연    ■ 조직부장 : 신지담

■ 문화부장 : 박보만    ■ 홍보부장 : 정호진    ■ 포교부장 : 한무심

■ 섭외부장 : 박정혜    ■ 관리부장 : 이성수    ■ 국제부장 : 김상철

(사) 대한불교 무량종 총무원 봉행위원장 정혜안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 전화 055)883-7771, 7790 / 팩스 055)882-9916